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2년 11월 27일
제1924호

주임 신부 :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 회장 : 강세원 바오로

연령 회장 :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 703 968 3010

팩스 : 703 968 3013

주소 :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 sthasang@gmail.com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공동체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기뻐 뛰니” (루카 1,46-47)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마태 24,44)



대림 제1주일 (가해)

제 1 독 서 이사 2,1-5 | 주님께서 영원한 평화의 하느님 나라로 모든 민족들을 모아들이신다.

화 답 송 시편 122(121) | ◎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제 2 독 서 로마 13,11-14기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복 음 마태 24,37-44 | 너희는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너희는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37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38 홍수 이전 시대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두고 시집가고 하면서,

39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40 그때에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41 두 여자가 멧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42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43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44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대림 시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희망과 기쁨의 시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회개와 속죄로 준비해야

대림 시기는 '주님 성탄 대축일' 전의 4주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님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는 시기이다. '대림' (待臨)이라는 말은 '도착'을 뜻하는 라틴 말 '앗벤투스' (Adventus)에서 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고 우리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확신하며 그분의 오심을 준비한다.

대림초 네 개를 마련하여 매주 하나씩 늘려 밝히는데, 이는 구세주께서 가까이 오셨음을 알려 주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 시기의 전례 때 사제는 회개와 속죄의 뜻을 상징하는 보라색 제의를 입는다.



복음 묵상

한겨울 매서운 추위에는 봄날의 햇살을 기다립니다. 한여름 숨막히는 더위에는 가을의 선선한 바람을 기다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에서 기다림을 경험합니다. 오늘은 전례력으로 새해 첫날인 대림 제1주일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이날을 시작합니다. 이 기다림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제1독서는 메시아 임명에 대한 기다림을 예언합니다. 그날에 하느님의 심판이 메시아 임금에게 전해질 것인데, 많은 백성 사이에서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지닌 예루살렘으로 모두 모일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그분의 길”,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라는 표현은, 신앙인이 삶 안에서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덕목으로 하느님의 말씀인 율법을 제시합니다. 한편 제2독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구원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잠에서 깨어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삶을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그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서는 사람의 아들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닥칠 것이라고 전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 들에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 멧돌질을 하던 두 여자의 이야기처럼 당신의 재림도 갑작스럽게 닥칠 것이니 늘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맺는 관계 안에서 자신의 신원과 정체성을 재확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삶과 실천으로 늘 깨어 준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만남을 기다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김상우 바오로 신부>

대림시기의 전례

이 대림 시기의 첫 주일부터 한 해의 전례주년이 새롭게 시작된다. 곧 교회 달력(전례력)으로는 대림 제1주일이 새해의 첫날이다.

대림 시기는 구세주이신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회개와 속죄로 준비하는 기간이다.

대림 제1주일 - 12월 16일

종말론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준비 기간

12월 17일 - 12월 24일

임박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

대림 제1주일

깨어 기다림

구세주를 깨어서 기다려야 하는 교회의 종말론적 자세 강조

‘주님이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재림하신다’ 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림은 언제 올지 모르기에 늘 깨어 있으라는 경고와 경각심이 성서 말씀의 중심이다.

대림 제2주일

회개

구세주의 오심에 대비하여 회개하도록 촉구

‘약속과 경고와 기쁜 기다림’이 주제이며,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회개를 강조한다.

대림 제3주일

구세주 탄생이 임박했음을 예고하는 기쁨 주일

‘다’ 해의 제2독서(필립 4,4) 말씀을 통해 잘 드러난다.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일반적인 세상에서 느끼는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시는 메시아를 믿고 기다리는 기쁨의 차이가 무엇인지 묵상하는 좋은 시기이다.

대림 제4주일

예수 탄생의 예고와 그분이 누구인지를 밝힌다.

‘주님의 강생 신비와 마리아의 역할’ 을 ‘가해’의 복음(마태 1,18-24)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나해(루카 1,26-38)는 주님의 강생의 신비를, 다해(루카 1,39-45)는 복되신 마리아에 대한 엘리사벳의 찬가와 성모 마리아의 찬가를 들려준다. 구원 사업의 협조자이며, 신앙인의 모델인 마리아가 어떻게 주님의 강생과 구원의 신비에 협조했는지를 묵상할 수 있다.

대림 묵상

회심

회심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 프란치스코 교황 -

회심은 지은 죄에 대한 통회, 죄에서 벗어나려는 열망, 자기 삶에서 영원히 죄를 몰아내겠다는 결심을 포함합니다. 죄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죄와 결부된 모든 것, 죄와 연관된 것들을 거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속적인 사고방식, 안락한 생활에 대한 과도한 동경, 쾌락, 행복 추구, 부에 대한 지나친 동경을 거부해야 합니다.

회심의 다른 측면은 여정의 종착점, 다시 말해 **하느님과 그분의 나라를 찾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물에서 이탈하고 하느님과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 하느님과의 친교, 하느님과의 우정을 목표로 삼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회심은 은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도 자신의 힘으로 회심할 수 없습니다. 은총이란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온 힘을 다해 하느님께 (은총을) 청해야 하고, 하느님이 우리를 회심시켜 주시도록 청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아름다움, 선하심, 온유한 사랑에 우리 마음을 여는 만큼, 우리가 정말 회심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청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온유한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하느님은 악한 아버지, 나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온유한 분이시고, 당신 양 떼의 (길 잃은) 마지막 양을 찾으시는 착한 목자처럼, 우리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회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곧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회심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을 회심의 여정으로 이끄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어떻게 오실지 보게 될 겁니다. 기도하고, 회심의 여정을 걸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한 걸음 더 발전할 것입니다.

1 루카회 월례회의 (60대 본당 남녀 교우)

- 일시 : 11월 27일(일) 오전 11:30 (B-3)

2 요한회 월례회의 (50대 본당 남녀 교우)

- 일시 : 11월 27일(일) 오전 11:30 (B-1,2)

3 K o C 월례회의

- 일시 : 11월 27일(일) 오전 11:30 (B-4)

4 동전 모으기 저금통 배부 (복지부 주관)

- 불우 이웃 돕기 동전 모으기 저금통을 배부합니다.
- 대림 시기 동안 동전을 모아 주님 공현 대축일(1월 8일)에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파티마 세계 사도직 첫 토요일 신심 기도 및 미사

- 토요일 신심 미사 : 12월 3일(토) 오전 10:30
- 파티마 사도직 기도회 : 오전 9시
- 토요일 신심 미사로 토요일 새벽 미사는 없습니다.

6 구역 임원 교육

- 일시 : 12월 4일(일) 오전 11:30 (B-1,2)

7 레지오 마리아 연차 총 친목회

- 일시 : 12월 4일(일) 오후 6시 (친교실)
- 대상 : 행동단원 및 협조단원

8 유아 세례

- 일시 : 12월 10일(토) 오후 2시
-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 첫 영성체반 등록

- 2023년도 첫 영성체반 등록을 신청받습니다.
- 10시 미사 후 30분 / 2시 미사 전 30분 (하상관 로비)
- 문의 : 윤정 보일 (703) 371-3589

10 2023년 매일미사 책 신청 및 병초(Box)주문

- 성물부에서 2023년도 매일미사 책과 제대초 봉헌을 받습니다. 자세한 것은 성물부에서 문의해 주세요.

11 전신자 대림 특강 (교육부 주관)

- 일시 : 12월 11일(일) 오후 1시-오후 3시 (친교실)
- 주제 : "새로운 계약의 쉼 성모님과 예수님의 강생"
- 강사 : 임성근 판탈레온 신부님 (부산 교구 / 미 가톨릭 대학 영성신학 박사과정)

12 성탄 판공성사 안내

- 본당 판공성사 : 12월 13일(화) 오후 3시, 오후 7시 (미사 후)
- 외부에서 신부님을 초빙하여 성사를 드립니다.

13 성탄 제대 꽃 봉헌 접수

- 문의 : 제대회

14 2022년 송년 대잔치 (구역부 주관)

- 일시 : 12월 30일(금) 오후 7시 (친교실)
- 미사는 오후 6시에 있습니다. • 대상 : 전신자
- 내용 : 개인 노래자랑, 장기자랑, 디너파티
- 문의 : 지경수 요한 (571) 331-6047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 일시 : 12월 24일(토) 오후 8시(구유예절로 시작)

주님 성탄 대축일 낮 미사

- 일시 : 12월 25일(일) 오전 8시, 10시, 오후 5시
- 학생미사 : 오전 10시 (친교실)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 일시 : 1월 1일(일) 오전 8시, 10시, 오후 5시
- 학생미사 : 오후 2시



"My soul rejoices in the Lord."

PREPARATION YEAR TWO: REJOICE

O Mary, Mother of the Church,
in you the Word became flesh.
All generations rejoice to call you blessed,
for the Almighty has done great things
for you and through you.

As we prepare to celebrate our Golden Jubilee,
help us to rejoice with you
as we remember the great things
that God has done for us.

Help us to imitate you,
in receiving the Word, your Son,
and bearing the Word to the world.

For He lives and reigns for ever and ever.
Amen.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2년 11월 20일

(은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주일 헌금	\$ 6,818.00
교무금	\$ 5,830.00
교무금(신용카드)	\$ 2,790.00
감사 헌금	\$ 360.00
2차 헌금	\$ 2,278.00
온라인 봉헌	\$ 4,078.00
합계	\$ 22,154.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정바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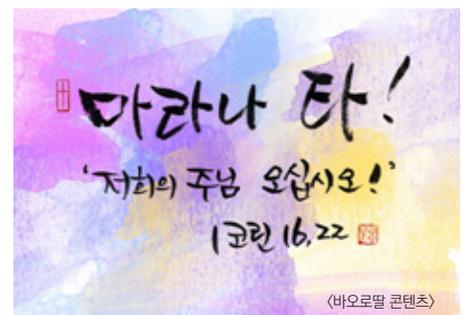
12월 1일(목) 오후 5:00 - 6:00
12월 2일(금) 저녁 8:00 - 9:00
12월 4일(일) 오전 6:00 - 7:00

1. 주일 강론
2. 성지 매혹의 땅을 가다: 성모 방문 기념 성당
3. 한국 교회사: 복자 박취득 라우렌시오



**교황님의 12월 기도 지향
비영리 자원봉사 기관들**

인간 발전에 헌신하는 비영리 자원봉사 기관들이
공동선에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을 찾고
국제적 차원에서 새로운 협력의 길을
끊임없이 모색하도록 기도합니다.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